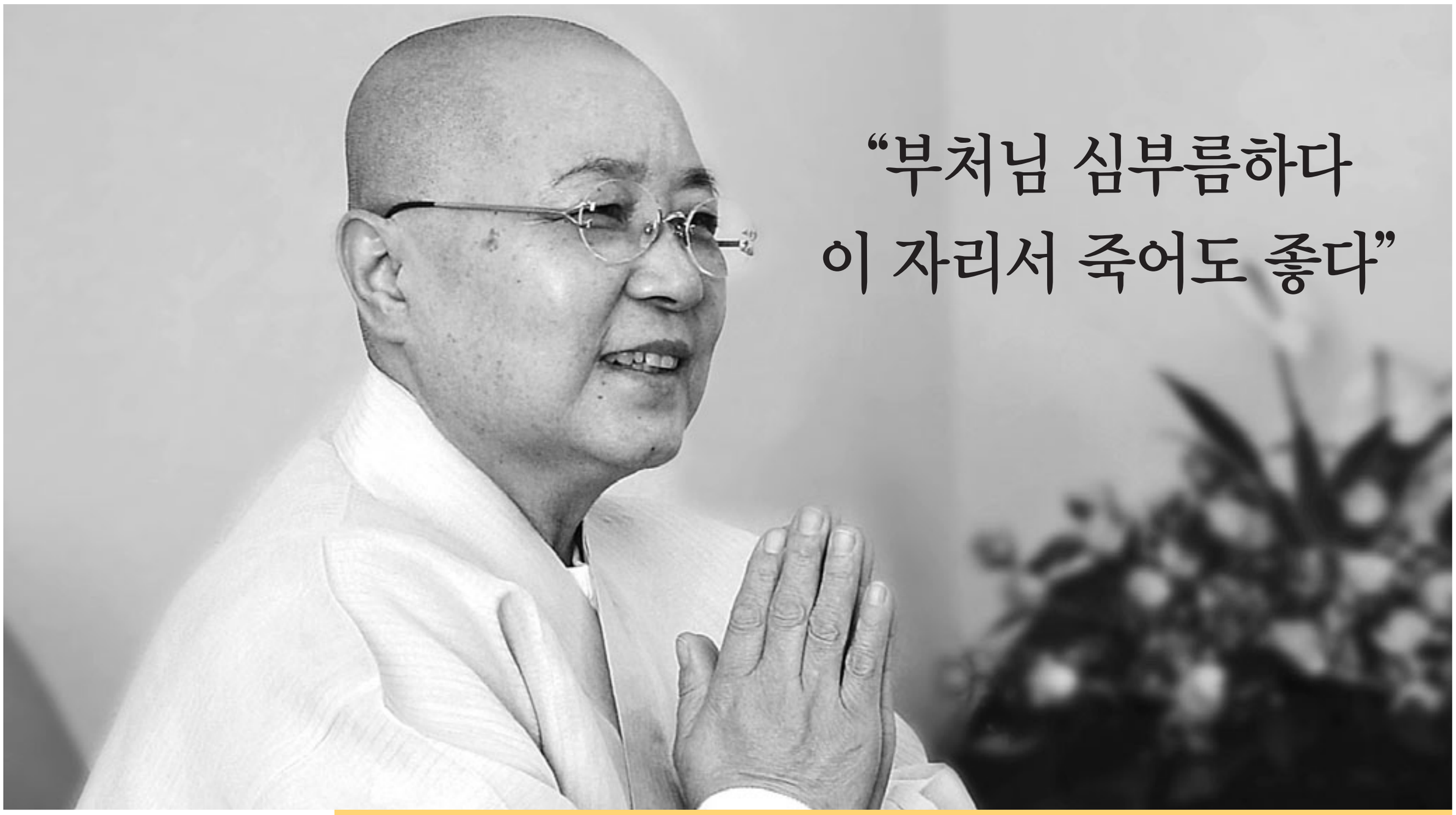


圓寂

현대불교 1162호
불기2561년 8월 30일 수요일

연자당 혜원 스님

1938~2017

“나도 버리고 가는데 무엇에 착(着)을 두겠습니까. 착할 데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면 신도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좋은 말씀을 더 전달해 드리나 이거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떡하면 내가 진짜 부처로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자나깨나 그게 중요한 거지.” 〈1993. 2. 21 시카고법회〉

“열심히, 나는 오직 이 생각은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나는 부처님 도량에서 열심히 부처님 심부름하다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2012. 4. 1. 본원 법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연자당(蓮子堂) 혜원(慧圓) 스님은 정진과 시봉, 포교와 전법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혜원 스님은 일생을 통해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게 정진하며 선원 창립자인 대행 선사의 손과 발이 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마음 도리를 홍포하는 일에 불철주야 쉼이 없었다.

1938년 3월 29일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난 혜원 스님은 1981년 대행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198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2년 한마음선원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제13대 중앙종회의원을,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제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선원 대중의 ‘엄한 어머니’

안으로는 수행 정진과 선사의 시봉을, 밖으로는 선원 외호와 포교에 진력을 다했다. 특히, 스님은 1992년 한마음선원 주지를 맡은 이후로 투철한 정진력으로 선원을 운영함에 심신을 아끼지 않았다. 25개에 이르는 국내외 지원 어느 한 곳도 스님의 손길과 원력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또한 혜원 스님은 대행 선사의 맏상좌로서 150여 명 사제들의 수행 정진을 보살피고, 선원 사부대중의 어머니로서 역할하며, 한마음선원 발전을 이끌어왔다.

불자들의 생활 참선 수행을 지도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거사회,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불자들에 맞는 다양하고 현대적인 포교 활동을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아 종단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돌려 말하거나 맞춰주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을 ‘엄한 호랑이 스님’으로만 알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스님의 진면목은 ‘어머니’였다. 못난 자식 종아리를 때리고 돌아서서 눈물짓던 혜원 스님의 속뜻을 은사 스님의 법문에서 느낄 수 있었다.

“주지가 급한 마음에 그냥 왈칵해버리는 걸 보고 차이를 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을 길러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 있으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 소리도 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속 깊이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 선사 법문 중에서〉

스님의 삶은 선원의 역사

혜원 스님의 삶은 한마음선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사에는 환희와 번뇌가 모두 담겨 있다.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맏형이라는 자리, 주지라는 자리를 오로지 신심과 원력으로 스스로를 경책하며 이끌어 온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기실 큰 살림을 이끌며 150여 사제와 수많은 선원 신도들을 지도하며 선사께서 내린 말씀을 시행하려면 부득이한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했을 것이다. “내면을 관(觀)하며 선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어른 스님께 뭔가를 시정해주십사 청하러 갈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혜원 스님의 생전 술회에서는 스님의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화두와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어디를 가나 꾸밈없고 당당한 대장부였다. 해외 지원 개원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다녔던 스님은 늘 있는 그대로를 대중들에게 보여줬다. 어디를 가도 휘둘리지 않는 스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대행선사 맏상좌로 선원 발전 견인차
선사 입적 후 가르침 선양에 주력
엄하고도 자애롭던 선원 대중 어머니
“모든 게 공부거리”… 당당한 대장부

대행 선사께서 알래스카 지원을 방문했을 때 혜원 스님이 다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선사는 혜원 스님에게 “고무신을 같이 갖고 오라”고 했다. 한국서 고무신을 가지고 다시 알래스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검색대에서 사람들이 영어로 고무신을 보고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다.

영어를 몰랐던 스님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너는 네 말 하는데 나는 내 말 못하겠냐” 하고는 한국말로 “고!무!신!”이라고 공항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검색요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통과시켜줬다고 한다. 스님은 오직 자신의 근본에 의지함으로써 물러서지 않는 패기를 스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줬다.

“전부 다 일거일동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써 심부름을 하고 갈 뿐(1998.11.7)”이라고 설했던 혜원 스님은 내 앞에 있는 모든 만사가 공부라고 했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신도들에게 말할 수 있으며, 모든 게 공부거리라고 했던 스님.

스님의 삶에서 우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면목을 만난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셔야합니다. 열심히 정진, 또 정진하십시오. 모두 열심히 하세요.” 생전 말씀이 남아있는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주지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을 추모합니다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www.hyunbulnews.com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셔야 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세요.”

■ 연자당 혜원 스님 49재 일정

- 8월 27일 초재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오전 11시
- 9월 3일 오후 2시 2재
- 9월 10일 오전 11시 3재
- 9월 17일 오후 2시 4재
- 9월 24일 오전 11시 5재
- 10월 1일 오후 2시 6재
- 10월 8일 오전 11시 49재